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의 창작(創作) 연대(年代) 연구(研究)

저자
(Authors) 신수식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23](#), 1961.5, 130-134 (5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3](#), 1961.5, 130-134 (5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4737>

APA Style 신수식 (1961).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의 창작(創作) 연대(年代) 연구(研究). 국어국문학, 23, 130-13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7 10:1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慕竹旨郎歌의 創作 年代 研究

—新羅 第28代 眞德王 初 花郎 得烏作—

辛 秀 植

- 1. 序 言
- 2. 三國遺事 記錄面에서 考察
- 3. 三國事記에서 본 竹旨郎의 行跡
- 4. 善德王代부터 登場한 竹旨郎
- 5. 結 論

1. 序 言

慕竹旨郎歌의 創作年代를 新羅 第32代 孝昭王代라고 定義하였던 것을, 筆者가 敢히 이것을 否認하고 新羅 第28代 眞德王初일 것이라고 是正하려는 것은 하나의 冒險이라고 自認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은 三國遺事의 記錄面이 先後條理가 맞지 않기 때문에 正史인 三國史記와 其他 信憑할만한 史記를 參酌하여 作者나 主人公의 生存年代를 찾아내는 것이 本研究發表의 根本目的이다. 그러면 여기에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와 三國統一이라는 歷史誌를 融合의으로 다루어서 慕竹旨郎歌의 創作年代를 定義하려는 것이다.

2. 三國遺事 記錄面에서 考察

三國遺事 記錄面이 어째서 先後條理가 맞지 않는가를 論하기 前에 于先 그 原文을 引用하면

「孝昭王代 竹旨郎

第三十二孝昭王代 竹曼郎之徒 有得烏級干 諫名於風流黃卷 追日仕進 隔旬日不見 郎喚其母 問爾子何在 母曰 饑與牟梁益宜阿干 以我子 差富山城倉直 馳去行急 未暇告辭於郎 郎曰 汝子若私事適彼則不須尋訪 今以公事進去 須歸享矣 乃以舌餅一合 酒一飢 卒左人而行 郎徒百三十七人 亦具儀侍從 到富山城 問關人 得烏夫爰在 人曰 今左益宜田 隨例赴役 郎歸田 以所將酒餅饗之 請暇於益宜 將欲借還 益宜固禁不許 時有使吏侃珍 管收推火郡 能節租三十石 輸送城中 美郎之重士風味 鄙宣暗塞不通 乃以所領三十石 贈益宜助請猶不許 又以珍節會知騎馬鞍具胎之 乃許 朝廷花主聞之 遣使取益宜 將浴洗其垢醜 宣迷隱 掠其長子而去 時仲冬極寒之日 浴洗於城內池中 仍合凍死 大王聞之 勅牟梁里人從官 者並合黜遣 更不接公器 不著黑衣 若爲僧者 不合入鍾鼓寺中 勅史上品珍子孫 爲秤定戶孫 標異之 時園測法師 是海東高德 以牟梁里人 故不授府職 初述宗公 爲朔州都督使 將歸理所 時三韓兵亂 以騎兵三千 護送之 行至竹旨嶺 有一居士 平理其嶺路 公見之歎美 居士亦善公之威勢赫甚 相感於心 公赴州理 隔一朔夢見居士 入于房中 室家同夢 驚恠尤甚 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 人曰居士 死有一矣 使來還告 其死與夢同

一矣 公曰殆居士誕於吾家爾 更發卒 修葬 於嶺上北峯 造石彌勒一軀 安於塚前 妻氏自夢
 之曰 有娠既誕 因名竹旨 壯而出仕 與庚信公 爲副帥 統三韓 眞德太宗 文武神文四代
 爲家宰 安定厥邦 初得鳥谷 慕郎而作歌曰

去歲春皆理米
 去冬居叱沙 哭屋尸以憂音
 阿冬乃叱 好支賜烏隱
 貞史年數就音 墮支行齊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鳥支惡知作乎下是
 郎也 慕理尸心未 行平尸道尸
 遙次叱若中宿尸夜音有叱下是」

〈三國遺事 卷第二〉

大意

「지난 봄(날)에 내가 여기 올 때 알리지 못하여 시름 끼치었나이다.
 어찌던 날 사랑하오시는(마음으로) 지난 해와 다름없이 눈에 들어킬 사이에(隔旬
 日 동안에) 만나뵈을 줄이야 어찌 알았으리.
 郎이시여 그리워하는 마음에 通할 길이
 죽어 地下(墓地)에 가서나 잠이 들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三國遺事에서 「初得鳥谷 慕郎而作歌曰 云云」 하였으니 「初」라는 뜻은 得鳥
 나 竹旨가 年少하였을 때를 指稱한 것이 明白하다고 보는 바이다. 또 그것이 다른 句
 節이라던 몰라도 바로 「與庚信公 爲副帥 統三韓 眞德太宗文武神文四代 爲家宰 安定厥
 邦 初得鳥谷 慕郎而作歌曰」 이라고 하였으니, 이 「初」라는 것은 眞德王代를 指稱한
 것이라고 認定된다. 그리고 竹旨郎이 得鳥를 만나러 富城에 갔을 때 益宣이 得鳥의
 請喚을 不許하므로 假珍과 더불어 益宣에게 많은 賂物을 주고 겨우 許諾을 받을 身分
 이었다면 그 事件 當時는 竹旨의 官等이 阿干보다 下級이었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萬若에 그 事件 當時 竹旨郎의 官等이 益宣阿干보다 上級이었다면 竹旨郎이 益宣을
 召喚하여 得鳥에게 休暇를 주라고 命令하면 될 것이지, 下級者에게 반드시 許諾을 받
 아야 된다는 것은 理解할 수 없다.

이것으로써 그 事件 當時 即 得鳥가 竹旨郎을 그리워써 노래를 지어 부를 그 當時
 는, 竹旨郎이나 得鳥가 青年時代였을 것이라는 것을 斷斷할 수 있다.

三國遺事에는 「孝昭王代 竹旨郎」으로 記錄되어 있으면서 그 內容面에는 眞德王代를
 前談한 人物들이 事件의 主人公이 되어 있는 矛盾이 있는데, 이것은 僭一然이가 33歲
 때 三國遺事を 記錄한 것인만큼 그가 年老하여 精神이 多少 昏迷해서 誤記한 것이 아
 닌가 斷斷된다. 그러면 三國遺事으로써는 慕竹旨郎歌를 孝昭王代 作인지 眞德王代 作이
 지 分揅하기가 困難하므로, 三國史記와 其他의 史料를 參照하여 그 年代를 定義하는

것이妥当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3. 三國史記에서 본 竹旨郎의 行跡

오늘날 得鳥의 行跡을 記錄한 史記는 三國遺事 外에 別로 없고 竹旨郎만은 그가 勇猛無雙한 將軍으로서 언제나 先鋒將으로 出戰하였다는 記錄을 비롯하여 三國史記나 三國統一誌에서 그의 行跡을 片鱗殘甲처럼 散見할 수 있다. 卽 三國史記에 依하면 眞德王條에

「眞德王이 卽位하니 名은 勝曼이오 眞平王之 母弟 國飯葛文王之 女이며 母는 朴氏 月明夫人이다. ……三年 正月에 처음으로 中國의 衣冠을 입기 始作하였다. 八月에 百濟의 將軍 殷相이 軍사를 거느리고 와서 石吐等 七城을 攻陷하였다. 王이 大將軍 金庾信과 將軍 陳春 竹旨·天存等을 命하여 나아가(百濟軍을) 막게 하였다시(註 1)

이렇게 竹旨郎은 眞德王 3년부터 大將軍 庾信公과 더불어 將軍으로 出戰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그러면 眞德王 3년부터 將軍이 되었던 그가 4代後인 孝昭王代에는 當六品官인 益宣阿干 따위에게 많은 賂物을 주고 得鳥의 講和를 했다는 것이 疑問되는 바이다.

또 그 다음에 계속하여 竹旨郎에 關하여

“太宗武烈王이 卽位하니 諱는 春秋요 眞智王之 子인 伊滄龍春의 子이다… 8年 2월에 百濟의 殘賊이 泗沘城을 來攻하므로…王이 大軍의 狀報를 듣고 크게 놀래어 將軍 金純·眞欽·天存 竹旨를 보내어 軍사를 增援하게 하였던바 加尸兮津에 이르러 大軍이 加召川에 退營을 듣고 도루 돌아왔다.”(註 2)라고 하였으니, 그는 太宗 8年에도 羅濟戰에 參加하고 將軍으로서 重職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 다음에는

“文武王이 卽位하니 諱는 法敏이요, 太宗王之 長子이다… 7月 17日에 金庾信으로 大將軍을 삼고 金仁問·眞珠·欽突로 大幢將軍을 삼고 天存·竹旨·天品으로 貨幢惣管을 삼고…”(註 3)

“8年春에 阿麻가 來服하였다… 伊滄 陳純·竹旨로 京停惣管을 삼고…”(註 4)

“10月 22日에 庾信에게 大角千의 位를 賜하고 仁問에게 大角千을 賜하였으며 이밖에 伊滄位의 將軍等에게는 祿다 角千을 주고 蘇判以下에는 位一級씩을 더 주었다.”(註 5)

이렇게 竹旨郎은 文武王 元年에 貨幢惣管이 되었다가 文武王 8년에는 伊滄으로 昇進하고 堂堂하게 京停惣管, 卽 首都軍司令官으로서 活躍하였고, 同年 10月 22日에 角千(大將)으로 昇進하였다는 데, 그 때로부터 約 30年後인 孝昭王代에 阿干 따위에게 許諾을 받았다는 것이 疑問되는 바이다.

4. 善德王代부터 登場한 竹旨郎

金鍾萬氏가 譯編한 『三國統一』이라는 歷史誌에서는 竹旨郎의 行跡이 善德王代부터

春秋公의 門徒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三國統一』이라는 冊子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은 그 序文을 보면 그의 價値를 判斷할 수 있다. 卽

“……新羅·高句麗·百濟 三國이 鼎立하여 나리온지 640年間을 지나 新羅 26代 眞平王으로부터 三國을 統一한 第30代 文武王에 이르기까지의 70年間 至今으로부터 1350年前부터 1280年前까지의 가장 複雜하고 對內對外的으로 多端한 史記의 一篇을 編譯…… 勇敢한 軍士는 戰場에 臨하여 앞을 다투어서 먼저 百濟를 滅하고 對馬島를 平定하여 鎮東大將軍 竹旨로 하여금 耽羅·琉球·倭國等 各國으로 派遣하여 說服시키니 歷訪한 後로는 各國은 다 稱臣을 하며 朝貢을 바치게 하였고, 唐나라 駐屯 軍士를 끌어내어 固有文化를 아득한 發源한 우리나라의 歷史를 만드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編譯한 原本은 『東國史記』『按東史記』『三國遺事』『興武王實記』를 基準으로 하여 編譯한 것입니다.”(註 6)

善德王代 春秋公의 門徒 竹旨

“春秋는 眞平王의 孫이요 角干 龍春의 아들이다.…… 그리고 公子의 門下에는 金文顯·過群解·金眞珠·任強善·天存 竹旨等の 文武를 具備한 門徒들이 있었다.”(註 7)

“公子는 金文顯·天存·竹旨等の 門徒를 거나리고 求賢의 績을 떠났다.”(註 8)

“……이편에는 竹旨郎이 소리 높여 <우려한 庚信을 竹旨가 당당 들어가서 끌고 나오시오> 公子는 이 말을 듣자 준열히 竹旨를 구령는다…….”(註 9)

이렇게 竹旨郎은 庚信公보다도 먼저 春秋公의 門徒가 되었고 三國統一戰에는 先鋒將으로서 勇猛을 떨쳤던 것이다.

『三國統一』의 登場人物錄에 依하면

“언제나 先鋒將이 되어 出戰하였다. 智勇을 兼全한 名將으로서 鎮東大將軍으로 對馬島를 鎮守하였고 三國統一 後에는 伊西侯로 對하였다.”(註 10)

라고 하였다. 慕竹旨郎歌의 年代 研究에서 作者 得烏의 行跡은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得烏와 同時代人이며, 主人公인 竹旨郎의 行跡을 一一이 論하자면 아직 30餘種이나 남아 있지만, 時間 關係로 略하겠다.

竹旨郎이 果然 孝昭王代까지 生存했는지의 與否는 寡聞한 筆者로서는 할 수 없으나 三國遺事 外의 史記에는 「三國統一 後 伊西侯로 封爵되었다」는 記錄뿐이지, 孝昭王前代인 神文王代에도 竹旨郎의 活躍한 記錄은 볼 수 없다.

5. 結 論

以上으로서 筆者는 竹旨郎이 孝昭王代 人物이 아니었다는 것을 論하는 同時에 慕竹旨郎歌의 創作年代도 孝昭王代가 아니고 眞德王代였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竹旨郎이 文武王代에 鎮東大將軍이었고 往年에 일게나 先鋒將으로 出戰하였던 勇將이 孝昭王代까지 生存했다든지 阿干마위에게 屈從을 받는 없을 것이다.

또 「初得鳥谷慕郎而作歌曰云云」하였으니 得鳥나 竹旨가 年少하였을 때 지어 부른 노래라고 볼 수 있다.

- 註 (1) 三國史記卷第五 新羅本紀第五 眞德王條
 (2) " " " " 太宗武烈王條
 (3) " 卷第六 " 第六 文武王條
 (4) " " " " "
 (5) " " " " "
 (6) 三國統一 金鍾萬編 序文
 (7) " " 第三章의 一 P. 48
 (8) " " 第三章의 二 P. 53
 (9) " " " P. 55
 (10) " " 登場人物錄 P. 17

「夢游錄」의 作者 小攷

李 家 源

이 『夢游錄』은 곧 世俗에서 이른바 『元生夢游錄』이다. 이는 天台山人의 『朝鮮小說史』를 위시하여 모두 白湖 林悌의 作으로 認定되었고, 筆者도 일찍이 이 原典에 注釋을 더하여 『國語國文學』誌 第4號에 실었을 때에는 家藏寫本에 의하여 그의 作者를 역시 白湖로 認定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元子虛」의 註에,

“假稱이니, 元은 元來란 뜻이요, 子虛는 史記 司馬相如傳에 「相如請爲天子游獵賦 賦成奏之 以子虛虛言也 爲楚辭 烏有先生者 烏有此事也 爲齊難」 <P. 14>

이라 하였으나, 그 뒤에 偶然히 이 『夢游錄』이 어떠한 面으로 보아서도 『愁城志』에 비하여 뒤질만한 作品이 아닌만큼 어찌서 『白湖文集』 중에 빠졌을까 하고 起疑한 적도 없지 않았으려니와, 이어서 「子虛」가 곧 世稱 「生六臣」의 한 사람인 瀾瀾 元昊의 字임을 알자 친구들에게 나의 前非를 宣言했다. 그야말로 재미있는 注釋이요 笑話이다. 이는 李翊 英·正代의 博學者로 이름 높던 順菴 安鼎福先生이 일찍이 『金瓶梅』를 「金屏梅」로 誤認한 것과 같았다. 그런 뒤에 筆者는 다시금 그 全篇의 文體를 考察해 보고서 바로소 白湖의 作이 아님에 起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攷據할만한 文籍이 없으므로 다만 그 篇末의 “每月居士志 白湖林悌識”라는 10字에 의하여 이것이 東峯 金時習의 作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이는 실로 이것만으로서는 立證할 수 없겠으나, 오로지 그 文體面으로 보아서 東峯의 것과 비슷할 뿐더러 그 主題나 構成이 「金瓶新話」 중의 몇 篇과 暗暗裏에 서로 통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流傳되자 漢文學에 精通한다는 선비들도 文體를 보아서는 알 수 없다는 말을 表明한 이도